

애꽃노린재(*Orius sauteri*)의 먹이충에 따른 생태적 특성

백재훈, 황창연¹, 이건휘, 최만영, 김상수²

농촌진흥청 호남농업시험장, ¹전북대학교 생물자원과학부,

²순천대학교 환경농업과학부

애꽃노린재는 총채벌레류, 진딧물류, 응애류, 미소곤충의 알 및 온실가루이 등을 섭식하는 광포식성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. 그 중 꽃노랑총채벌레(*Frankliniella occidentalis*), 목화진딧물(*Aphis gossypii*), 점박이응애(*Tetranychus urticae*)를 먹이충으로 공급하였을 때, 애꽃노린재의 발육과 해충별 포식량을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고자 한다.

27°C의 항온조건에서 꽃노랑총채벌레 2령, 목화진딧물 1-2령, 점박이응애 알을 먹이로 공급하였을 경우, 애꽃노린재의 생존율은 각각 96.4, 78.4, 73.8%로 꽃노랑총채벌레 2령을 먹이로 공급하였을 경우 생존율이 가장 높았다.

꽃노랑총채벌레 2령, 목화진딧물 1-2령, 점박이응애 알을 먹이로 공급하였을 경우 애꽃노린재 약충 발육기간 및 포식량을 조사한 결과, 암/수별 약충의 각각 발육기간은 12.2/12.8, 13.0/13.2, 17.9/17.8일로 꽃노랑총채벌레 2령을 먹이로 공급하였을 경우 가장 짧았으며, 암/수별 약충의 각각 포식량은 204.1/153.7마리, 103.2/101.1마리, 830.6/718.2개로 암컷의 포식량이 더 많았다.

꽃노랑총채벌레 2령, 목화진딧물 1-2령, 점박이응애 알을 먹이로 공급하였을 경우 애꽃노린재 성충수명 및 포식량을 조사한 결과, 암/수의 성충수명은 각각 55.9/31.0, 30.2/30.8, 25.8/25.1일로 꽃노랑총채벌레의 2령을 먹이로 공급하였을 경우 성충기간이 가장 길었으며, 암/수 성충의 포식량은 각각 1746.4/ 170.8마리, 532.2/180.8마리, 4375.4/1727.7개로 전체적으로 암컷이 수컷보다 포식량이 훨씬 많았다.